

보험

산업이슈

2017. 11. 10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 참관기

New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 11/9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소위 문재인케어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당국자들의 방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Comment

보험업계의 반사이익, 통계적으로 정확히 추정하겠다: 패널토론에 나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예비급여팀 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확하게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추정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손보험회 토론자의 언급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 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반사이익 부분을 주먹구구로 계산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보겠다. 의료이용 행태 변화 가능성도 감안하겠다.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하는 것과, 반사이익도 100%를 보장하는 상품과 최근 판매한 착한실손이 받는 영향을 다 분해해 내겠다. 또한 보장성 강화가 향후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

Action

일단 내년초에는 그대로 실손보험료 인상될 가능성 높다고 예상: 일단 정책당국과 보험업계가, 문재인케어 시행을 통해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형태로건 이러한 반사이익을 향후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결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도 확고한 것 같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무리한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없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정확한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일단 내년 초에는, 기존의 높은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후 문재인케어의 영향을 정밀하게 예상해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손보사들이 일단 '시차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주의 경우 관련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긍정적인 접근이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어쨌거나 장기위험손해율은 내년도 개선 트렌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17-09-30 기준) - 매수(66.0%) 중립(34.0%) 매도(0.0%)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